

편집자의 말

‘말 걸기’를 시작하며

윤상인 _ 한양대학교 일본근현대문학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일본에 대한 학술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의 일본연구의 역사도 거의 반세기를 헤아리는 셈이 된다. 연구의 내용과 수준에서 맹아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런 판단을 공유할 만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숙의 존재증명이 학문의 바벨탑에 바쳐진 벽돌 숫자에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관습에 대한 회의와 스스로의 허물을 벗는 내파적 상상력에 의해서만 비로소 성숙이라는 가치가 담보되기 때문이다.

『일본비평』 첫 호를 낸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본연구 관련 학술잡지는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많다. 따라서 단지 벽돌 한 장을 새로 엮기 위해서라면 이 잡지가 세상에 나와야 할 당위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이미 쌓아진 벽돌을 빼내는 심정으로 익숙해진 ‘틀’에 간극을 만들고 대안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서 존재 근거를 찾고자 한다.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 일본연구의 발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 설정이 빠질 수 없다. 돌이켜보면 국내의 일본연구는 일본학계의 주류 담론에 의해 지나치리만큼 보수적으로 확정된 학문 규율과 범주화의 자장 속에 놓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연구행위와 발신영역에서 내향적 영토화가 진행되었고, 또한 이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변경’에 가두고 말았다.

모든 일본연구자가 우직하게 ‘일본’을 욕망하는 것은 괴기스럽다. ‘일본’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한국인들이 사고의 용적을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다. 일본사회나 일본문화에 대한 관찰의 결과물은 인접 학문영역에서도 응용 가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의 삶과 현실을 깊고 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유로 환원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탈영토화에 대한 지향과 실천을 통해서만 일본연구라고 하는 ‘영토’의 존재 이유를 담보할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는 가까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일견 ‘비학술적’으로 비칠 염려를 무릅쓰고 우리가 애써 ‘일본비평’이라는 제호를 채택한 것 역시 탈영토화에 대한 지향을 표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두 가지 층위에서 ‘비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정한다. 첫째는 학술행위의 임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유연하고도 능동적인 사유의 기표로서, 둘째는 “비판은 자신의 입장(근거)으로부터 다른 것을 공격한다는 의미이고, 비평은 오히려 자신의 근거 자체를 되묻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정의를 원용하여, 지식생산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기존 학문세계의 발화 방식이 권위의 망토를 걸치고 닫힌 일방통행의 양상으로 이뤄져 왔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정당하고 유효하다. ‘말하기’와 ‘말 걸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명료하다. ‘말하기’가 전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말 걸기’는 쌍방향 소통을 전제한다. 우리는 ‘말 걸기’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발화형식이라고 믿으며, 이런 ‘말 걸기’에 대한 실천 의지를 ‘비평’이라는 유연한 사고틀에 담고자 한다.

연간 2회 발행하는 『일본비평』의 지면은 ‘기획특집’과 ‘연구논단’, ‘서평’과 ‘강연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획특집’과 ‘서평’은 일본국가, 일본사회, 일본문화에 대

한 현재적 관심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창간호의 특집주제는 ‘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미국’이다. 미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전후 일본의 국가적 원리와 일본인의 정신적 심층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획이다. 일본인들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 ‘미국’은 일본인들의 자기인식을 결정할 외부 세계 그 자체이자 절대적 타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1853년 우라가(浦賀)에 내항한 페리함대는 일본의 문호개방을 이끌어 내고 막번체제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로부터 90여 년 후인 1945년 8월 30일, 전용기로 도쿄 교외 아쓰기(厚木) 비행장에 내린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은 일본을 군국주의 노선에서 민주주의국가로 바꾸는 광범위한 개혁을 주도했다. 근대 일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두 번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가 모두 미국의 입회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함포외교에 따른 개항과 연합군사령부의 점령에 대해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순결 상실이라는 성적 은유의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예컨대 점령군이 강요한 상징천황제는 ‘국체’의 유린이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는 국토와 국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이라는 역사인식 속에서 미국은 자애로운 인도자이자 후원자로서의 얼굴 외에 안하무인의 가해자라는 또 하나의 얼굴을 갖는다. 전후 일본인에게 ‘미국’은 풍요와 자유를 의미하는 기표이며, 아메리칸 스탠더드는 그 자체로 보편적 가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삶과 정신 속에서 어느새 ‘문물’의 형태로 잠재하는 미국의 그림자는 ‘일본인됨’이라는 주체의 문제를 상상할 때마다 ‘피점령’ 현실을 환기하고 굴복과 종속이라는 비대칭구조 속에서 굴절된 자기상과 마주하게 한다.

이 ‘기획특집’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군복 차림에 가부장의 위엄과 여유를 지어 보이는 맥아더 사령관과 그 곁에 모닝정장 차림으로 직립부동의

자세로서 있는 히로히토 천황. 정치학자 더글러스 러미스의 표현대로 이 사진이 ‘결혼기념사진’이고, 이 결혼으로 태어난 것이 현대 일본사회라는 식의 단순화는 유보하기로 하자. 그러나 적어도 이 사진은 ‘미일포옹’의 원형 서사와 관련된 기사감을 자극한다. 나가사키에 기항한 미합중국 해군의 바람둥이 장교 핑커턴 중위와 단돈 100엔에 열다섯 앓된 나이로 파란 눈 미국인의 현지처가 된 초초 상을 둘러싼 신파극「나비부인」의 내러티브는 거의 주술처럼 이 사진의 구도를 선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진 일본은 연합군사령부가 주도하는 전후개혁을 통해 평화·민주주의 노선을 걸었고, 냉전시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다는 공식 내러티브는 이 사진이 내장하는 도상학적 의미작용을 상당 부분 제한할 뿐이다. 마치 성인과 중학생만큼이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체격의 불균형에서 ‘미일동맹’이라는 이름의 대미종속 현실을 읽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껏 여유로운 포즈 속에 맥아더가 연출해 보이는 가부장적 관대함은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사면을 천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고,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쟁과 식민지 지배책임의 망각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를 추론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전후 일본은 반공의 교두보, 자본주의 경제의 중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포스트제국 질서의 중심부에 편입되었다. 맥아더와 히로히토가 나란히 선 사진이 초강대국 미국과 구 제국 일본의 ‘결혼’을 의미한다면, 미국 헤게모니 구축과 아시아에 대한 역사망각은 신랑신부가 교환한 혼수였던 셈이다. 또한 요시미 순야의 지적대로 미일동맹의 지지 기반이 과거의 지위를 온존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무의식에 있다고 한다면, 제국주의로 치달았던 탈아입구 노선의 예에서 보듯이 탈아입미의 심성 역시 헤게모니에 대한 욕망과 결부될 수밖에 없

다. 그 욕망의 표출은 종종 '식민지없는 식민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니와, 비근한 예로는 패전 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분리·배제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균형한 구도가 연출하는 충격 효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역사의 종식으로 각인되었던 이 사진에서 역사의 지속을 읽어내는 것 역시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비평』 창간호의 특집을 구성하는 다섯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서평은 이 사진에 대한 도상학적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진우의 「상징천황제와 미국」은 상징천황제가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탄생했고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는지를 밝힌다. 점령군은 천황에게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대신 대미의존적이고 친미적인 역할을 부여했고, 이렇게 해서 존속한 천황은 평화주의자로 미화됨으로써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역사관의 근원을 이루었다. 특히 아시아적 관점에서 상징천황제가 '미일포옹의 표상'으로서 존속해 온 것 그 자체보다는 상징천황제가 "천황의 전쟁책임을 면책하고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천황의 전쟁책임을 계속해서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상징천황제가 전쟁과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망각 기제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인식은 천황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친미 이데올로기는 원폭피해의 집단기억을 둘러싼 표상의 정치학에도 개입한다. 권혁태의 「'유일 피폭국'의 언설과 주체의 문제」는 일본인에 의한 원폭 관련 언설이 정치 작용에 의해 굴절되어 온 궤적을 조명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원폭 만화가 나카자와 게이지의 원폭 소재 만화는 초기에는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했지만, 점차 미국에 대한 분노의 표출에서 벗어나 핵무기 그 자체에 대한 혐오로 바뀌게 된다. 필자는 일본사회에 확산되던 친미적 시대분위기에서 그 배경을 찾

는다. 아울러 “반미를 내세우기보다는 피해와 기해의 구도를 해체하고, 핵병기 대 인간의 문제로 히로시마·나가사키 문제를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배경에는 피폭국이면서 미국 핵우산의 보호 아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는 자기모순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폭의 경험을 문명 대 인간의 구도로 탈역사화하면서도 1980년대 이후에는 ‘유일 피폭국’이라는 언설을 통해 “일본국민을 피해 주체로서 내쇼날한 틀에서 복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희생자 의식의 정신적 토양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합군사령부는 국가신도를 해체하고 종교에 대한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철폐했다. 이른바 ‘신들의 러시아워’라고 불리는 신흥종교의 범람이 시작된 것이다. 박규태의 「일본의 현대종교와 미국」은 신영성운동의 대두와 옴진리교 사건의 성격을 미국발 글로벌리즘과 개인주의와의 관계들에서 파악한다. “옴사건은 글로벌리즘의 움직임 가운데에 세계를 의식했을 때 돌연 일본문화를 자각하면서 자폐증에 빠진 일본 사회의 뚜렷한 징후였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포스트모던적 영성 지향 속의 일본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7년간의 점령기간을 거치면서 일본의 엘리트들에게 미국은 ‘세계의 현재’에 대한 은유가 되었다. 미국적인 것이 곧 근대적이자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은 전후 일본사회를 추동하는 여러 기제 중 하나였다. 정진성의 「노사관계에서 본 아메리카나 이제이션—일본생산성본부의 활동을 중심으로」는 경제 현장에서 미국적 제도와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정치하게 고찰한다. 1950년대 후반에 생산성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지원 하에 도입된 미국 노사관계 모델은 일본의 산업분야에 미국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보급하기 위한 ‘복음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결과 ‘노사 이해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실제의 미국 노사현실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노사협동’

이 강조되었다. “‘양호한’ 노사관계는 사실(fact)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노사협조 이데올로기의 보급의 결과로서 ‘노사협의회’와 같은 비미국적인 제도가 정착되었다. ‘실체로서의 미국’보다 ‘이념으로서의 미국’이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현대 일본사회 형성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재일한인에 대한 점령정책을 연구해 온 김태기의 논문 「GHQ/SCAP의 반공정책과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를 중심으로」는 1948년 한신교육사건에 이은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의 배경과 경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성과이다.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는 점령군의 지나친 반공정책의 결과였으며, 일본정부는 막후에서 점령군의 강경조치를 이끌어냈다. 즉 민족교육에 대한 권력의 탄압은 미국과 일본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패전 후 재일한인에 대한 점령군과 일본정부의 배제정책에 강력하게 작동한 것은 국민국가의 원리이며 반공의 이념이었다. 이러한 미일포용의 양상에서 들여다보이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내셔널리즘을 조장하고 나아가 일본의 식민주의를 잔존·지속하게 한 후견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특집의 논점을 보완하고, 생산적 토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집주제와 관련이 깊은 주요 저작에 대한 서평을 매호 게재한다. 조관자의 「‘반미=아시아주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다」는 2008년 여름 국내에서도 번역판(『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이 나온 바 있는 요시미 슌야의 『친미와 반미—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이와나미, 2007)에 대한 비판적 글 읽기이다. 문화연구의 시각을 가지고 미디어, 풍속, 대중문화의 지층에서 ‘친미’의 흔적을 발굴하는 이 책을 필자는 애써 ‘비틀어’ 읽는다. 예컨대, 일상의 생활세계 속에서 추출되는 ‘정치적 무의식’이 ‘친미’라 할지라도, 헌법

개정을 추동하는 국민적 정서를 떠올리면 포스트제국 질서 속의 대외관계에 대한 일 본인의 '정치적 의식'은 '반미'에 가깝다고 반론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에서 볼 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내셔널리즘에 경도한 지식인의 주류는 '반미'의 정치적 태도를 견지했으며, '친미'와 '반미'는 경쟁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면서도 양자가 공조체제를 이루며 미국 헤게모니와 자국 내셔널리즘을 동시에 구축해 왔다는 필자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현대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자 '9조회'의 공동대표인 이노우에 히사시의 강연록 「전쟁과 헌법」을 신는다. 오에 겐자부로, 쓰루미 슌스케 등과 함께 풀뿌리 호헌운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답게, 오로지 서민의 관점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돌이켜보고 평화에 대한 절실한 소망을 말하는 육성은 각별한 공명을 자아낸다. 일본인으로서 지녀야 했던 가해자 의식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 올 수 없었다는 강연 첫머리의 고백에서 과장이나 분식의 흔적을 찾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노작가의 솔직한 소회와 신념이 짙게 묻어나는 강연이다.

『일본비평』은 매호에 걸쳐 강연이나 강좌의 기록을 게재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이 잡지의 발간 모체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다양한 논제의 강연·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육성기록을 통한 지식과 생각의 발화형식이 이 잡지의 성격을 보다 뚜렷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논단’에 특집주제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일본의 현재를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게 해주는 중후한 논문 3편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장인성의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는 에토 준, 사에키 게이시, 니시베 스스무 등과 같은 보수논객의 언설

분석을 통해 현대 일본의 보수 지형의 심층으로 안내하는 귀중한 통찰이다. 필자는 ‘보수 감각’을 “전후체제의 허구성과 뒤틀림을 감지해 내는 감각”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평화헌법 및 미일동맹체제에서 일본국가의 타율적 비주체성을 읽어내는 감수성이며, 담론투쟁을 통해 보수의 일상감각을 보수주의 이념으로 재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의식의 회복을 지향하는 심성이다. 필자는 보수의 심리가 전후 일본의 국가와 사회를 보는 보수지식인들의 불안감에서 나온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보수의 논리는 탈냉전·지구화의 맥락에서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는 공동체(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성’(共同性) 속에 있기를 요구하면서, 대외적 주체인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공성’(公共性) 속에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주체에 관한 안과 밖의 이중 기준을 노정한다고 비판한다.

장달중의 「중국의 부상과 중-일 간의 파워게임—일본의 시각을 중심으로」는 중국의 국제적 부상에 따른 중일 간의 권력게임 양상을 역사적·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논문이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합하는 ‘일중 2강 시대’를 맞아, 메이지유신 이후 140년간에 걸쳐 아시아의 선두 자리를 지켜오면서 완성시켜 온 ‘근대화 서열사관’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 일본인들의 정신적 동요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경제면에서 파트너화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라이벌화되고 있는 중국과 불안한 탱고를 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이 서양(미국)과 아시아 사이에서 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에 따른 아시아 분단통치의 출발점이기도 한 미일 포용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불안한 탱고’를 추어야 하는 일본의 외교적 곤경이 결코 강 건너 불은 아니다.

한영혜의 「재일조선인 사회 민족무용의 전승과 아이덴티티」는 재일한인들의

민족무용 전승의 역사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민족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일
한인의 아이덴티티 재구축에 관여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힌다. 광복 후, 남북분단에 의
한 민족무용 전승체계의 분절과 같은 곡절도 있었지만, 재일한인들에게 전통무용은
민족성 회복을 위한 매개체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무용'의 영향력이 '조
선무용'의 그것을 능가하면서 전통무용이 '예술'로 자리매김된 데 이어,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월경현상과 조선과 일본, 혹은 조선과 한국이 합동무대를 꾸미는 융합
현상도 일어났다. 특히 일본사회로의 동화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아이덴티티의
재구축을 모색하는 흐름에 착목하여, "‘동화’와 ‘민족성’은 양자택일적인 관계가 아니
라, 어떤 부분에서의 ‘동화’는 다른 부분에서의 ‘민족성’의 확보 노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중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사유
방식의 위험성을 일깨워 준다.

1년 후인 2010년은 한반도 강점의 역사로부터 100년째가 되는 해이다. 페리 제
독이 이끄는 동인도함대의 내항으로부터 약 20년 후, 이번에는 일본해군 군함 운요
호가 함포외교를 통해 조선에 세력거점을 구축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제국 연쇄
의 첫 고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주도
했다. 미국 헤게모니의 그림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화의 과정에도,
강점상태로부터의 해방과 국토분단의 역사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국이 한국인
이나 일본인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주술체계로 각인된 이유이다.
냉전의 종식과 중국 파워의 부상으로 오랜동안 미국이 누려 온 초월적 지위에도 변
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국 헤게모니는 건재한 듯
보인다. 이 두 나라에는 현재도 미국의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다.

1945년 이후의 한국과 일본을 이란성 쌍둥이로 형용하는 것은 그다지 무리한 비유는 아니다. 우선 미군기지와 양공주, PX, 연재만화「블론디」, 재즈와 팝 뮤직과 같은, 조금의 시차도 없이 한국과 일본의 전후공간을 장식하는 문화적 기호들을 떠올릴 수 있다. 두 나라는 각각 약 3년간의 군정기와 약 7년간의 GHQ 점령통치를 거치며 반공 거점이 되어, 미국에 의한 동아시아 분단정치의 최전선을 형성했다. 이 시기에 형성 혹은 재편된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미국을 최상위에 놓는 인종적·문화적 위계의 내면화를 내포했다. 즉, 지역 국가 간의 적대관계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주는 구조였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혹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성된 적대적 공범관계를 다소 민망스럽게 들춰내 보이는 보기창인 것이다.

미국 헤게모니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이라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집에 수록된 논문들이 미국과 전후 일본에 관련된 중요한 논제들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아시아', '한국과 미국' 등과 같은 주제가 지도 논의의 범주 속에 끌어들이는 문제설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끝으로 현대 일본사회의 심층으로 이끄는 진지한 통찰의 글들을 읽는 첫번째 독자가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긴다.